

經濟學教育的 現況과 發展方向

安 洪 植
(梨花女大 經濟學科)

I. 經濟學教育的 哲學

인류가 사회를 형성한 이래 인류는 독립된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사회의 구성체로서 필연적으로 生存問題에 부딪쳐 왔으며 수천 년의 과거 역사 속에서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존문제에 대한 解答을 시도함으로써 멸망 속에서 자신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制限된 資源과 복잡다기한 인간관계 속에서 인류의 생존 문제에 대한 解答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제학의 對象은 人間 그 자체이며, 경제학의 연구과제는 인간의 현실적 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학의 분석 대상이 반드시 물질적 요소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제학의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학은 인간을 물질적 궁핍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命題와 항상 마주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內在적으로 추구하는 價値基準이 있다면 그것은 效率(efficiency), 公平(equity), 自由(freedom)라는 개념이라는 데

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은 一見 타당한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가치 기준이 경제학과 경제학교육의 철학이 되어 그 위에 精緻한 理論과 현실경제에 대한 分析 및 解明이 추구될 때 바람직한 경제학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II. 經濟學教育的 現況과 趨勢

우리나라의 경제학은 해방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는 日本의 경제학이 主流를 이루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 美國留學을 마친 젊은 경제학자들이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는 미국 경제학의 亞流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그간의 국내 경제 상황을 돌아본다면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과 함께 국내에서의 경제학 및 경제학자의 比重이 점차 높아졌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를 떠나서는 國家大政을 論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학 및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거의 모든 대학이 경제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각종 경제 정보의 洪水를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결국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학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것이며, 따라서 경제학 교육의 중요성 역시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다.

물론 本稿의 중심 내용이 경제학교육의 과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현재와 장래의 경제학교육은 필연적으로 현재와 장래의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학교육의 과제를 다루기에 앞서 우리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을 먼저 음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母胎가 되는 美國을 中心으로 한 主流經濟學의 現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美國 經濟學의 現況을 一瞥한 뒤 우리나라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을 현재 學界에서 論議되고 있는 몇 가지 論點을 중심으로 分析한 후 경제학교육의 現況과 發展方向, 그리고 그를 위한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Ⅲ. 美國 經濟學 動向

현재 우리나라 경제학교육의 母胎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 美國 經濟學의 성격과 최근 경향은 어떠한가? 몇 가지로 나누어 파악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의 주요 분야를 고려할 때 케인즈 혁명 이후 그 영향력을 증대시켜 온 巨視經濟學은 아직도 健在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나, 그 主流는 케인즈流, 通貨主義, 합리적 기대학과, 심지어 供給側經濟學에 이르기까지 分化現象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에 어느 한 學派에 의한 獨走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微視經濟學은 一般均衡理論의 精緻化를 비롯하여 勞動, 交通, 의료, 자원, 인구, 환경 문제는 물론 여성, 老年, 범죄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분석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그 위치를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다.

經濟學史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든 반면 經濟史의 경우에는 史的 側面에 치중하였던 종래의 연구방향은 史學科 쪽으로 移轉되고 있는 반면, 計量的인 접근방식을 援用한 計量的 經濟史流 쪽으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둘째, 수학 및 통계학에의 의존도가 심화됨과 동시에 급속히 발달, 보급된 컴퓨터의 이용을 통한 數理的, 計量的 분석방법이 전 경제학 분야에 걸쳐 일반화됨으로써 實證分析이 없는 단순한 이론의 전개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주요 학술논문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一瞥해 볼 때 뚜렷이 드러나는 한 현상이라 하겠다.

셋째, 學界와 정부의 공공기관, 각종 연구소 및 산업계간의 학문적 교류가 확립되어 있어 현실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함에 있어 경제학자들 상호간에 활발한 討論의 場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자들간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은 경제학을 더욱 精緻하고 현실적인 학문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네째, 경제학 각 분야의 專門化와 현실경제 분석의 計量化 현상은 자기의 발표논문이 價値 中立性의 경향을 보이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경제학 全般을 감싸고 있는 哲學 자체가—그것이 어떠한 類型의 것이든지간에—소멸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미국 主流經濟學의 특성과 경향은 한국의 유학생들을 통해 대부분 그대로 국내로 흡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그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Ⅳ. 經濟學의 學問的 性向과 經濟學教育

우리나라 경제학교육의 현황 파악과 提言에 앞서 그 搖籃이 되는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떠한 성격의 경제학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분명히 解明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나 할까, 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다음의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다.

첫째는 한국 경제학의 土着化에 관한 論議, 둘째는 경제학의 가치 중립적 경향에 대한 論議, 셋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主流 경제이론과 우리의 현실 경제와의 乖離에 대한 주장들이라고

하겠나.

한국 경제학의 토착화 문제는 1970년대 이후 경제학계 일각에서 元老經濟學者들을 중심으로 점차 제기되어 왔는 듯 싶다. 물론 그것은 현재의 국내 경제학의 성향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主流경제학의 수입품인 반면 우리의 사회 경제적 현실은 미국과 크게 다르다는 데 그 논의의 출발점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너무도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하겠다. 이는 누구도 한국 경제학이 定立·토착화되는 것에 반대할 터 없고 토착화된 한국 경제학이 우리의 경제학 교육의 要諦가 되는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듯 싶다. 우선 한국 경제학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이 명확치 않다. 그것이 미국 경제학 一邊倒에서 탈피하여 유럽 및 日本文流의 경제학적 성향을 포함·통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성격의 경제학을 창조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世界主流 經濟學 등의 학문적 성향을 추구하되,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응용·적용토록 하자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듯하다(필자의 좁은 소견으로는 마지막 입장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한국 경제학 정립의 方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한국 경제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든간에 우리의 경제학 연구 방향은 세계적 潮流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세계 경제학의 主流가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의 학문적 성향 및 연구 방향 역시 미국 경제학을 흡수·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실 문제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연구 및 경험을 참조하여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학이 국가경제에 이익을 담당하는 한편 세계 經濟學界에서 얼마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은 향후 우리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을 정립하기 위해 좋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두번째 논의인 경제학의 價値中立的 傾向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主流경제학은 전공 분야의 細分化和 수리, 계량적 접근 방법의 심화로 가치중

립적 성향을 띠어 가고 있으며, 미국 경제학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학의 학문적 성향도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가치중립적 성향의 선호는 아직도 우리에게 지나치게 思辨的이고 주관적인 학문적 성향이 많이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학문의 발달과 그로 인한 현실 적용 가능성의 폭은 개개인의 학문적 주장이 논리적이고도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때 더욱 확대되는 것이며 연구 결과에 대한 學者 個個人의 가치 판단 有無는 극히 보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가 時論을 전개함에 있어 주관적 가치 판단을 제시하여 현상을 분석·비평한다는 것이 흔히 요구되는 것이라 해도 학문적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규범적인 가치 판단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적으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序論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경제학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효율, 공평, 자유—라는 틀 속에서 항상 현실의 문제를 捕捉, 分析, 解明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관점이 경제학교육의 저변에 깔려 전수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의 초점이 되는 것은 세번째 논점이 아닌가 싶다. 즉 미국에서 수입된 主流경제이론과 우리나라 현실경제간에는 큰 乖離가 있으며 이의 무분별한 적용은 크나큰 弊害를 초래했으며, 또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비판인 듯 싶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론과 현실의 乖離는 미국의 主流경제학 理論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아닐 것이다. 사실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란 어느 학문에서나 늘상 존재하는 것이며, 굳이 그 원인을 지적하자면 『主流경제학의 분석 방법이 지나치게 계량화된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모델·구성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현실과 일부 乖離된 假定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데 한 원인이 있고, 그와 같은 모형은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우리의 경제 현실

과는 또 다른 퍼리가 內在하는 모형이라는 점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이와 같은 乖離를 좁히지 못하는 理由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국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일부 책임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수입된 경제학을 우리 실정에 맞게 再造形할 우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부족 때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퍼리 현상은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것이겠으나 아직도 우리의 경제학 교과과정 및 교육에 그대로 殘存하여 있는 바, 우리 경제학의 학문적 성숙이 도래할 때까지는—한국 경제학의 토착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이론과 현실간의 갭은 선진 이론 자체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외국의 應用事例에 대한 연구 등에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선진 경제이론의 우리나라 경제에의 수많은 응용과정이 계속 시도됨으로써 점차 메꾸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경제 분석에 외국의 선진 경제이론이 응용되는 현실을 敬遠時할 것만은 아닌 듯 싶다.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 경제학자들 상호간에 토의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 경제 현실에 보다 적합한 이론이나 모델이 찾아지는 것이며, 그것은 한국 경제학 정립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학은 수리적, 계량적 접근을 통해 보다 精緻한 학문이 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計量的 接近方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현실경제 문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많은 해명을 제시해 왔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 경제이론을 습득·응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제 현실을 보다 명확히 포착, 해명할 수 있는 이론적 경제 모형의 재조형이 요구되는 것이며, 現今의 수리적, 계량적 접근방식의 경제학 潮流를 종래의 비계량적 분석 방법으로 되돌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론과 현실간의 乖離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V. 경제학 교육의 發展을 위한 提言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향후 경제

학교육의 방향에 대해 이제 몇 가지 座標를 提示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학문적 성격에 있어 외국의 精緻한 이론을 흡수·체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학, 통계학, 미시이론 등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이론의 현실적용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사회, 경제적 현실을 깊이 분석·이해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형의 개발에 노력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자들간의 자유롭고도 광범위한 토의의 場이 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국가경제의 운용은 보다 폭 넓은 경제학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한편, 보다 精緻한 경제이론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갖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에 충실히 立脚한 가운데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론 위해 정부 및 공공단체 각종 연구소와 학계 상호간에 人的 資源의 교류 및 공동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 교류의 한 가지 방안으로 연구소 연구원과 대학 교수간의 1년 정도의 교환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각종 경제문제 研究所의 경우 研究員들이 완전히 研究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사전에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Brookings Institute 나 연방 준비제도 등과 대학간의 인적 교류 및 공동연구는 향후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 韓國經濟史에 대한 연구의 강화와 선진 각국의 事例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학 敎科課程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세분화된 각 분야를 모두 습득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基礎課程에 충실한 후, 몇몇 특정분야에 치중하며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기초과정을 이수한 뒤 현실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思考토록 훈련시키는 한편 경제이론 및 기본적 가치 개념과 현실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토록 유도한 후 몇 가지 특정 분야에 대한 응용 및 실증 분석을 시도케 함이 필요할 것이다.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과정이 현실적

으로 어렵다면 각 대학의 경제학과 한 분야만이
 라도 特定分野를 설정하여 그 분야를 체계적이고
 도 집중적으로 연구·분석하도록 교과과정을 改
 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지하다. Robert Solow
 教授의 말을 인용한다면, “技術的 能力이야말로
 경제학도를 餘他の 진단과 구별해 주는 要諦”이
 기 때문이며, 기술적 분석능력이 뒷받침되지 못
 한 채 이론적 지식만 갖고는 현실경제 문제의 해
 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해서는 컴퓨터 체계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금의 경제학 연
 구 및 교육에 있어 컴퓨터의 이용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경제이론과 현실의 괴
 리를 해소하는 방안도 컴퓨터의 활용 여부에 달
 려 있다고도 하겠다. 사실 많은 대학이 현재 운
 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설에 몇몇 Software pack-
 age(SAS 등)를 도입·설치하는 한편, 컴퓨터
 사용을 위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배정한다면 경
 제학교육은 훨씬 效率的이고 生動的인 것이 될
 것이다.

경제학의 연구 대상이나 교육과정에 있어 거
 시이론 및 거시경제정책 일반도에서 탈피하여
 노동, 교통, 보건, 인구, 자원, 도시문제 등으
 로 경제학의 연구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재정학 및 獨寡占規制 등의 분야의 경우, 정치·
 법률적 접근에서 경제적 분석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 경제학과 내의 교수 분포를 고려
 해 보면 거시, 화폐금융뿐 아니라 계량경제학,

노동경제학, 재정학 등에도 많은 교수들이 布陣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경제학의 연구대상
 영역을 계속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학은 인근 학문과의 連
 繫에 있어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경제학 자체뿐 아니라 관련 他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經營學과
 의 疏遠함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경제 현실에 적합한 학문적 성격
 의 제구명과 함께 경제학 교과서 및 참고서의 경
 우 기존 이론과 함께 현실의 경제문제를 분석·
 해명하는 노력이 그 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경제학 古典의 번역 사업을 통해 경제학도
 들이 쉽게 古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講究되
 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늘날 우리 경제학의 학문적 성
 격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그를 통한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나아가 향후 경
 제학 및 그 교육의 발전 방향을 위한 몇 가지
 提議를 시도해 보았다.

사실 오늘날 경제학 교육의 결정적 문제점은
 교육과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현실경제에
 적합한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定立과 관련하여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本稿의 論議를 전개
 해 나아갔으나, 이와 같은 필자의 관점이 거의
 일천 명을 헤아리는 우리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부합되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